

■ 특선급 기수로 본 '경륜 그랑프리' 판도



광명스피돔의 트랙을 질주하고 있는 경륜 선수들. 18일부터 열리는 그랑프리 경주를 앞두고 경륜의 세대교체를 주도하는 '젊은 피' 20기 선수들의 패기 넘친 도전과 이에 맞서는 선배들과의 대결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선급만 12명 20기 주목하라

13기 이명현·이현구 잔재...18기 테크니션 출범

벨로드롬은 20기 전성시대!
2015 그랑프리가 18~20일 광명스피돔에서 열린다. 그랑프리는 내로라하는 철강들의 대결인 만큼 본선 티켓을 거머쥔 선수는 대다수가 경륜 엘리트 그룹인 특선급이다.
1994년 출범 이후 경륜선수는 현재 21기까지 576명. 이 중 특선급은 108명으로 18.7%를 차지하고 있다. 그랑프리를 장식할 특선급과 기수는 어떤 인연이 있을까.

●대세 기수 '젊은 피, 20기'...특선급 12명 최다

2013년 데뷔한 20기는 특선급 108명 중 12명이 나 차지하고 있다. 제일 많다. 20기는 무서운 신인들의 기수였다. 입문할 당시만 해도 이현구, 박용범, 이명현, 김민철 등 기존 강자들이 워낙 철옹성을 이루고 있었는데 데뷔 다음 해인 지난해 본격적으로 특선급에 투입되자마자 경륜계는 들썩였다. 기존 강자들을 상대로 자신감 있게 선행 승부 외 조종술과 노련미를 요구하는 마크 경합을 펼치며 패기와 체력으로 이겨냈다. 경주 평균시속을 1~2초 빠르게 움직인 주인공들이다. 내년 슈퍼특선급 진입이 예정된 정종진(28)이 급부상하면서 향후 1~2년은 강세를 보일 기수다.

●스타군단 13기, 여우같은 18기...경륜황제 배출 16기

13, 18기들은 공교롭게 각각 특선급 11명으로 20기에 이어 그 뒤를 잇고 있다. 슈퍼특선 박용범을 배출한 기수가 바로 18기다. 강진남(28) 신은섭(28) 등 테크니션들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못지 않게 13기에는 슈퍼특선 김주상(32)을 중심으로 박병하(34)가 포진하고 있다. 그러나 김동관(30) 노태경(32) 송경방(33) 최순영(33) 등 스타급 선수들의 빠른 퇴보가 향후 행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16기 특선급은 10명. 그 중 경륜황제 슈퍼특선 이명현(31)과 이현구(32)의 '쌍두마차'를 중심으로 양희천(33)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명현은 전성기 때 두 바퀴 승부의 새바람을 일으켰고 과거 한 바퀴 승부에 그친 국내경륜을 한 바퀴 반 승부로 승부거리의 변화를 준 주인공이다. 이현구는 절대강자 절대약자 없는 특선급에서 지난 해 21연승과 함께 결국 연말 그랑프리 우승으로 대파란을 일으켰다. 여기에 16기 졸업 당시 대어였던 양희천이 버티고 있다. 한편 19기는 아마추어 1km 독주 강자였던 류제열(28)부터 경륜 데뷔 후 환골탈태한 황승호(29)의 현란한 마크추입까지 다양한 전법을 구사하고 있는 이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개성적인 기수다.

●고참 8기와 11기, 팀별 큰 형님 12기, 팀별 활력소 17기

경륜 고참 격인 8기와 11기가 각각 7명이다. 현재 대다수 선수들이 뒷방으로 밀려났지만 8기 '불사조' 슈퍼특선 김민철(36)과 경륜 전설인 홍석한(40)이 잔재하다. 11기는 슈퍼특선 김현경(34), 황순철(33)이 잔재하며 데뷔 당시 자타가 공인하는 역대 최고의 선수였던 조호성(11기, 은퇴)을 배출했던 기수다. 역대 95명이란 최다기수를 배출한 두꺼운 선수층도 한 몫을 하고 있다.

팀별 큰 형님으로 통하고 있는 12기는 특선급 8명이다. '핵탄두' 이홍주(38)가 대표적이다. 팀별 활력소로 통하는 17기는 특선급이 7명이다. 수도권 강자 김형완(28) 유태복(30) 인지환(32)이 대표적이다. 이외 '불도저' 박일호(41)가 대표적인 10기가 6명이다

21기는 성낙송(25) 황인혁(27) 등 6명을 배출했다. 수도권 강자로 2009년 그랑프리 챔피언 출신 이육동(32)을 배출한 15기가 5명, 비선수 출신 신화를 이어간 조봉철(36)을 배출한 14기가 4명으로 있고 있다. 그 중 올해 16명 졸업생 중 특선급 6명을 배출한 21기가 돋보인다. 싱싱한 다리로 선배들 상대로 위협적이다.

연재호 기자

경마팬이 직접 뽑은 '서울 7두·부경 9두' 출전

13일 열리는 경마 그랑프리의 모든 것

국산마 우승 6번뿐...3년연속 우승 도전
'그랑프리' 유독 악한 서울 설욕도 볼거리

"2015 최강의 경주마는 누구냐?"

올해 대미를 화려하게 수놓을 '그랑프리(GI)' 경주가 13일 오후 5시 랫트퍼파크 서울에서 제9경주(3세 이상, 레이팅오픈, 2300m)로 펼쳐진다. 그랑프리 경주는 1982년 특별경주로 출발해 올해로 34회를 맞는다. 우승상금 3억8500만원, 2위상금 1억4700만원, 3위상금 9800만원 등 총상금 7억원으로 코리안더비, 대통령배와 함께 국내 최고의 GI 경주 중의 하나다.

출전 경주마는 한국경마에서 유일하게 경마팬이 직접 뽑는다. 올해 대상경주나 특별경주서 우승했거나 최근 1년 동안 순위상금 소득액을 기준으로 총 80두의 후보마를 뽑은 뒤 마주 및 조교사의 출전여사를 확인한 뒤 출전후보로 등록되면 경마팬이 후보들 중 자신이 응원하는 마필을 투표하는 방식이다. 실력과 인기를 접해야 출전할 수 있어 출전자제가 큰 영예인 경주다. 올

해는 서울에서 7두, 부경에서 9두가 최종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다.

●대통령배 우승=그랑프리 공식 이어질까... '트리플나인'에게 물어봐

올 그랑프리 경주에서 주목할 만한 부분은 올해도 대통령배 우승마가 그랑프리에서 차지할 것인가 여부이다. 2013년 '인디밴드'가 대통령배와 그랑프리에서 우승했다. 2014년에는 '경부대로'가 '인디밴드'의 바통을 이어받아 대통령배와 그랑프리에서 동시에 석권해 '대통령배 우승=그랑프리 우승'이라는 공식을 세웠다.

올해에도 공식 성립의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대통령배 우승마인 '트리플나인'은 해당 경주에서 월등한 기량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트리플나인'이 추임마라는 점이 2300m의 장거리인 그랑프리에서 유리한 고지를 이미 선점했다.

●2013년, 2014년 이어 이번에도 국산마 우승?

올해로 34회를 맞는 그랑프리는 그동안 외산마의 잔치였다. 국산마의 우승은 총 6번에 불과했다. 그러나 최근 대회 우승을

살펴보면 상황이 달라진다. 2013년과 2014년 그랑프리에서 우승을 차지한 마필은 모두 국산마였다.

과거에는 국산마의 수준이 낮아 외산마의 독무대였지만 최근에는 이런 경향이 바뀌고 있다. 경쟁력 있는 고가의 씨수말 도입에 따른 영향이 크다. 실제 최근에 개최된 상위등급 경주를 보더라도 외산마보다 국산마의 전력이 강한 편이다. 이번 그랑프리 역시 국산마가 5두 출전한다. 이중 '트리플나인'이 선봉에 나서고 서울의 '소통시대', '신데렐라맨'도 경쟁력을 갖췄다. 수적으로는 열세이나, 질적으로는 충분한 경쟁력이 있어 주목해볼 만 하다.

●최강의 라인업 서울... 이번엔 서울이 설욕 할까

올 시즌 오픈 경주는 부경의 무대였다. 서울은 단 한차례 밖에 우승 하지 못했다. 아시아챌린지컵에서 '최강실러'가 우승을 한 것이 유일하다. 이번 그랑프리에서의 서울 라인업은 가히 최강이다. 대표 외산마인 '클린업조이'와 '클린업천하'를 필두로 호전세의 '신데렐라맨', '소통시대', 전성기를 맞이한 '치프레드캔' 등이 선봉에 선다. 객

관적 전력에서는 부경의 '트리플나인'이 강하지만, 2300m의 거리나 다른 변수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한다면 서울도 해볼 만한 경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세마들의 대결, 국산4세마 대결, 포입마들의 대결

3세마들의 대결도 눈에 띈다. '트리플나인' vs '볼드킹즈'의 대결이다. '트리플나인'은 인기투표서 600표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엑톤파크'의 아들로 올 대통령배를 품는 등 국산마의 자존심을 지켰다. 여기에 도전장을 내민 것이 '볼드킹즈'로 국산마와 외산마의 동등한 조건에서의 대결이다.

국산4세 말들의 승부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소통시대'와 '금포스카이'의 대결이다. 우승후보권에서는 다소 멀어 보이지만 뚜렷한 질주습성이 있어 의외의 결과를 보일 수도 있다. 이밖에 포입마들의 대결인 '신데렐라맨' vs '간다이', 암말계를 평정한 신구대결 '해바' vs '감동의바다', 서울 외산마 3파전인 '클린업천하' vs '클린업조이' vs '치프레드캔'의 대결도 흥미거리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클린업천하



클린업조이



트리플나인



감동의바다



치프레드캔

‘그랑프리’ 운명을 건 우승후보 5두

신예 강자 '클린업천하'...후반 최강탄력 '클린업조이'
전통의 강호 '트리플나인' '감동의바다' '치프레드캔'

제34회 그랑프리의 주인공은 누굴까. 국내 최강말의 영예와 상금 3억8500만원은 누구의 손에 들어갈까.

그랑프리에서 출전할 마필들은 이미 확정됐다. 서울에서 '소통시대' '치프레드캔' '클린업조이' '클린업천하' '신데렐라맨' '언비터블' '담양축제' 등 7두, 부경에서 '트리플나인' '해바' '감동의바다' '금포스카이' '볼드킹즈' '고지정별' '간다이' '천재보고' '노바디캐치미' 등 9두로 총 16두가 출발을 기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그랑프리에서 출전할 16두의 마필 중 '트리플나인' '클린업천하' 등 5두를 우승 후보 1순위로 꼽고 있다.

▶클린업천하(미국, 수, 4세, 김효섭 조교사)

선입과 추입의 선택이 자유로운 신예 강자다. 1군 승군전에서 '원더볼트'를 상대해 2위를

기록한 바 있어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평가다. 3코너와 4코너에서 벌어진 거리를 극복하지 못 하고 아쉽게 2위를 차지했지만 결승에는 끝까지 힘이 넘쳐 인상적인 모습을 남겼다. 체형도 좋고 기본기도 우수한 편이어서 중장거리 마필로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통산전적: 16전(7/6/2/0/0) 승률: 43.8% 복승률: 81.3% 연승률: 93.8%

▶클린업조이(미국, 거, 4세, 김효섭 조교사)

능력적인면도 갖추고 있고 후반 탄력도 좋다. 2014년 3세마로 그랑프리(GI)에 출전에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전형적인 추입형 마필로 장거리에 유리한 면모를 보인다. 클린업조이는 작년 그랑프리 출전 이후 올해 2000m 장거리 경주에만 출전을 해왔다. 총 4번의 2000m 출전에서 단 1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1위로 입상했다. 통산전적: 13전(6/5/0/1/0) 승률: 46.2% 복승률: 84.6% 연승률: 84.6%

▶트리플나인(한국, 수, 3세, 김영관 조교사)

'트리플나인'은 추입마로 경남도민일보배에서 우승을 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오너스컵에서 준우승을 차지, 록밴드에 이은 유력한 후보마이다. '록밴드'에 석패했지만 대통령배 재패로 '록밴드'에 제대로 설욕한 부경의 기대주이다. 올 이번 대통령배 마지막 직선주요에서 바깥쪽 5위 자리에서 순식간에 4마리를 제치고 우승을 거머쥔 정도로 뒷걸음이 좋은 마필이다. 통산전적: 11전(7/4/0/0/0) 승률: 63.6% 복승률: 100.0% 연승률: 100.0%

▶감동의바다(미국, 암, 6세, 김영관 조교사)

상황에 따라서 선행이 자유롭고 추입력 발휘도 가능해 전개에 유리하다. 2012년 그랑프리 우승마이자, 2015년 부산광역시장배(GIII) 우승마이기도 하다. 6세의 고령이지만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고, 부경 19조를 대표해서 출전했다는 점에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통산전적: 29전(14/4/6/1/1) 승률: 48.3% 복승률: 62.1% 연승률: 82.8%

▶치프레드캔(미국, 거, 5세, 박천서 조교사)

중반 탄력발휘에 강점이 있는 마필이지만 순간 스피드가 워낙 우수해 경주 중반부 순위를 끌어 올리는 작전도 가능해 기대치가 높다. 최전성기에 있으며, 상승세에 있다는 점에서도 무시하기는 힘들 듯하다. 통산전적: 16전(6/3/1/0/2) 승률: 37.5% 복승률: 56.3% 연승률: 62.5%

연재호 기자



"여기수들 팬들과 만나요" 인기 여자기수인 이아나, 이금주, 안효리, 김혜선, 유미라, 이애리 기수(왼쪽부터) 등 6인이 12일(토) 랫트퍼파크 서울에서 '6인의 여자 기수 사진전-말 위의 아테나'를 기념해 팬 사인회를 연다. 이날 행사는 오후 1시 30분에 시작되던 전석수 1000명을 대상으로 사인회를 진행한다. 사진제공: 한국마사회

레이싱미디어 김문영 대표, '말산업으로 융성...' 책 발간

레이싱미디어 김문영 대표(한국전문신문협회 부회장)가 우리 말산업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진단하는 책 '말산업으로 융성하는 나라'(사진)를 발간했다. 1986년 독점경마장을 취재하며 시작된 말과의 30년 인연을 오롯이 담아낸 '취재수첩'이자 대한민국이 선진화되기 위한 말산업 발전 방향을 제시한 전문 서적이다.

이 책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됐다. 1장은 2011년 말산업육성법 시행에 따른 현장의 기대와 국내외 말산업 환경·현황 그리고 육성 필요성과 과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장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말산업 육성에 있어 최대 걸림돌임을 주시시키며 사감위 규



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3장 '경마는 도박이 아니다'는 경마산업에 대한 대중의 부정적 편견에 맞서 경마의 본질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있다. 4장에서는 인류보다 먼저 출현한 말의 진화 및 개량 과정과 종류, 우리 말의 기원에 대해 서술했다. 또 말의 심리와 습성과 생태 등에 대해서도 자세히 소개했다. 5장 '대한민국 말산업 육성, 어떻게 해야 하나'는 우리 경마·승마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현장의 문제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연재호 기자